



베드로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
라파엘로 (Raphael Sanzio, 1483-1520)
1515-1516, 종이에 글루 템페라(수채), 344X534cm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영국 런던

입당송 | 시편 66(65),1-2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5,27ㄴ-32.40ㄴ-41

화답송 | 시편 30(29),2와 4.5-6.11-12ㄴ과 13ㄴ(◎ 2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

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 묵시 5,11-14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복음 | 요한 21,1-19<또는 21,1-14>

영성체송 | 요한 21,12-13 참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영제 요셉 신부 | WYD 법안·기획 사무국 국장

제게는 감동적인 부활 체험이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을 코 앞에 두고 군에 입대했을 때의 일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살면서 한 번도 부활 대축일 미사를 빠진 적이 없는데, 훈련소에 입소한 첫 두 주간 동안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미사에 참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종교 행사가 허락되어 기쁜 마음으로 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대 가까이 앓고 싶은 마음에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사가 시작되자 가톨릭 성가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의 굼직한 반주 소리가 오르간에서 흘러나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훈련이 고됐기 때문이었을까요? 전주를 듣자마자 저는 눈물과 콧물 다 흘리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성체를 모실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 평평 울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제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 당신의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미사가 끝나자, 신부님께서 “너 신학생이지? 뭘 그렇게 울어.”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훈련병 모르게 초코파이 하나를 더 주신 것은 두 배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기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목이 타들어 가는 갈증을 느끼고 평소 쓰지 않던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킬 때마다 짜증과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 미사에 가면 피곤한 육신을 달래고자 최대한 편하게 앉아 눈을 붙이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제대하고

난 후, 어느 날 부활 대축일 미사 중 같은 성가가 흘러나오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던 그 감동과 기쁨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만 취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복음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라는 베드로의 말은 어부였던 그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큰 기쁨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일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순간적인 감정 또는 느낌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들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물을 쳤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부활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기쁘다 하여 우리의 삶이 마법처럼 꽃길로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할 때, 곧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질 때, 온갖 종류의 돌과 잡초에 덮여 있던 우리 인생길 위에 숨어 있는 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물에 다 담을 수 없는 은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거칠고 험난한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꽃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성화 해설

‘라파엘로 카툰’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카툰(cartoon)은 태피스트리(tapestry), 즉 벽을 장식하는 직물을 위한 밑그림을 말합니다. 밑그림이지만 그는 섬세한 구성과 다채로운 색감으로 오늘 봉독된 복음과 마태오복음(16, 18-19)을 적절히 결합하여 그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릎을 꿇고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오른손으로 양 떼를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질문에 합당한 응답은 사랑과 돌봄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고향 양양의 성당엔 ‘안나’의 시간이 있다



이경자 안나 | 소설가

서울주보에 글을 쓰려니 어린 날의 양양성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곳은 제 유년의 정신의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성당 건물은 양양에선 볼 수 없는 건축물.

수녀님은 얼굴과 손목 이외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사시사철 그랬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드러내지 않는 차림, 그리고 고개를 조금 숙이고 걷는 자세. 그런 수녀님을 보면서 ‘나도 수녀님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희망도 가졌습니다. 두 분 수녀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수녀님은 큰 수녀님, 다른 한 분은 작은 수녀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양양성당을 떠나온 지도 거의 60년이 지났는데, 지금 추억하니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제 일보다 옛날이 더 잘 기억난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1958년 성탄 대축일에, 그때의 표현으로, ‘영세를 받았습시다.’ 주기도문과 요리문답을 외워서 시험을 쳤고 합격했었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를 세례명으로 정했습니다. 안나로 살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성당. 매일 새벽 미사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성당의 언덕길로 달려 올라가곤 했습니다. 성당 바닥은 나무판자를 깔 마룻바닥. 겨울이면 그 틈새로 살얼음 같은 바람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미사를 드렸습니다. 넓고, 여기저기 형짚을 대서 기운 내복에 바지나 치마를 입었던 그맘때의 겨울 옷차림으로.

미사를 드리고 성당을 나오면 무언가 다른 내가 되어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늦잠꾸러기였다 게을렀던 저.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제 이런 태도를 엄마는 아주 의아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얀 종이나 다름없던 제 정신에 드리운 성스러운 교회의 모든 것들, 그 경건한 신앙에 스며들던 어린 저의 세계를. 나쁜 짓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데 나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때렸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누구를 미워했다거나...

사춘기 소녀가 되었을 땐 ‘수녀님’이 되고 싶어서 한 번은 진지하게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일로 유학을 가야 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의 나. 현실로부터 붕 떠나 다른 세계로 삶을 이전하는, 표현하기 어려운 기분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안나로 살기 시작했던 유년과 사춘기 시절은 제 삶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설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사랑의 바퀴를 보내주세요



성인 여성 장애인들과 수녀님이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예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지현(가명) 씨는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 없이는 어느 곳도 갈 수 없습니다.

직업 재활을 하는 보호 작업장과 예샘의 집은 오갈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주말이 되면 가까운 근교로 나들이를 갈려고 해도, 휠체어를 탄 지현 씨로선 장애인 특장차량이 없으면 꼼짝없이 집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강원도의 최초 중증 장애인 시설인 ‘애네아의 집’에서 생활하는 민성(가명) 씨도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애네아의 집은 시골에 있기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려면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일반 택시는 탈 수 없고 장애인 콜밴을 이용해야 하는데 운행 차량 수에 비해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많아 1~2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병원 예약시간이 지나버리거나 외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길가의 작은 돌맹이로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기 위해서는 휠체어에

탄 채로 차량에 탈 수 있도록 돕는 리프트 또는 슬로프, 휠체어 전용 안전벨트 등을 설치한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특장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 특장차량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많은 예샘의 집과 애네아의 집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두 단체 모두 15여 년 전에 구입한 장애인 특장차량이 있지만 오랜 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 고장이 잦아졌습니다. 문이 고장나 닫히지 않거나,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안전이 우려될 만큼 위험한 차량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막대한 수리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예샘의 집에서는 지난 1월, 소유했던 단 1대의 장애인 특장차량을 폐차 처리하였고 애네아의 집 역시 지난 12월에 보유 중인 차량 중 1대를 폐차하여 시설에서 생활하는 30명의 성인 장애인의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수녀님, 붕붕 가고 싶어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모두 주말 나들이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가까운 근교로 나가 새로운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장애인 특장차량을 타고 봄 나들이를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따스한 햇살 아래 피어난 봄꽃을 보며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5월 3일~30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애네아의 집, 예샘의 집’ 시설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특장차량 지원을 위해 씁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 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 ① 우측 QR코드 입력(www.babo.or.kr/hand)
- ② 전화 신청: 02)727-2507 (재)바보의나눔



(재)바보의나눔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특례기부금단체)입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닮는 방법 (루카복음)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유년기 사화(루카 1-2장)입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부분인 만큼, 유년기 사화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첫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루카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유년기 사화를 읽으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에서 ‘자비’(ἐλεος)라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오는데, 그중에서 무려 다섯 번이 이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중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루카 1,54)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루카 1,78)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성모님의 노래에 나오는 것으로 구약에서 하느님이 보여주신 자비에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은 즈카르야의 노래에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 역시 하느님의 자비 덕분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루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오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자비 덕분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년기 사화에서 강조된 하느님의 ‘자비’(ἐλεος)는 복음의 이후 내용들에서 어떻게 묘사될까요? 흥미롭게도 ‘자비’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에서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지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초추점이 된 사람을 다른 모든 이들은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그에게 자비(ἐλεος)를 베푼 사람입니다.”(37절)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유년기 사화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하느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던 루카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행동을 설명하면서 ‘자비’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버림받고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고 행동할 때, 하느님의 자비를 닮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상황과 똑같은지는 않지만, 하느님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바로 그 마음이 하느님의 자비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자비를 조금이라도 닮아, 우리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느님



허환 안드레아 | 청년 꾸르실로 체험 및 봉사자

‘하느님을 가장 강렬하게 만났던 순간’이라는 주제를 제시받고, 그런 순간이 언제였던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문득, 지금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과정 전체가 하느님 섭리의 한 단면을 체험했던 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이맘때 저는 막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38살 봄, 저는 당시 만나던 연인과 이별을 맞이했었습니다. 이별의 슬픔보다 ‘또 언제 좋은 사람을 만나, 언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감이 컸습니다. 결혼에 대한 걱정이 나아가 하느님의 부재 체험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30대가 되면서 저는 결혼을 빨리하고 싶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는 운명의 그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고, 곧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제가 기대한 만큼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사람에 대한 외로움과 불안함 너머에서 발견하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가령, 같은 본당 청년과 사귀어 적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과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지 않았는데도 공동체에 폐가 될까 싶어 관계에 미련을 가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결국 이별했습니다. 다음 연애는 성격이 잘 맞는 사람과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느님의 섭리가 제 계획 너머에 있다는 것은 일에서든 사람 관계에서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여자 친구 근무지가 바뀌었는데, 그곳 직장 상사 한 분이 유독 여자 친구에

게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힘들어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생겼습니다. 일 년 넘도록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자 노력했지만, 인연이 더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원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다른 이별을 맞이했던 38살 봄 어느 날, 매우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밤하늘에 유난히 밝게 빛나던 별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제 짝이 없는 것 같아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는 생각지 못한 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만남보다는 일과 성당 활동에 매진하고 있던 제게 아내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만남을 시작하고 마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성가정이란 같은 이상향을 꿈꾸던 저와 아내 소화 데레사는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토록 바라던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든 아내가 사랑스러운 만큼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이 벅차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제가 아내를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저와 아내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힘에 부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보호 안에서 저는 사랑받고 베푸는 법을 배웠으며, 아내를 만났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배우자를 찾는 과정 안에서 체험했습니다. 제가 바라던 때에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원망했던 순간에도 주님께서서는 저와 함께하셨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순간에 주셨습니다.

5

언제 다시 뵈올런지요?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정순매 바르바라가 동정을 지키고자 신분을 위장해 거짓으로 머리를 올리고 있다. (탁화성 화백, 절두산 순교성지 제공)

초기 한국 교회사 기록에서 지워져 희미해진 이름들과 만나곤 합니다. 《사학징의》에는 교회 주요 거점마다 예외 없이 과부들의 존재가 포착됩니다. 이문동 정진사 집 두 과부, 한신애의 딸 조혜의, 궁녀 문영인을 가르친 50대 청상과부와 김계완을 가르친 윤씨, 동막 사는 태(太)씨, 왕십리의 뒷방 과부, 양사동과 약현 사는 과부, 윤유일의 사촌 윤조이, 폐궁 나인 서경의, 청파의 술집 노파 고씨, 수각교의 과부, 교리 교사 김순이 다슬라 등이 그들입니다.

과부들은 단체 생활로 교회의 거점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남대문 손만호의 집에는 7, 8명의 과부들이 모여 교리 공부를 했지요. 군기시 앞에 살던 김희인의 집에도 과부들이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김희인이 검거될 때 김흥년, 이흥임, 이어린아기, 김경애 등이 함께 끌려와서 신문을 받았습시다. 이흥임은 김경애의 시숙모였고, 이어린아기와 김경애는 모녀 사이였습니다. 이중 김경애는 동정녀로 과부 행세를 하며 신분을 꾸몄습시다. 동정녀이면서 가짜 과부 행세를 한 사람은 윤점혜와 이득임, 박성엽 등이 더 있었습니다.

김희인의 과부 합숙소가 발각되어 수색하자 엄청난 양의 교리서와 성물들이 쏟아져 나왔습시다. 성화 족자가 3개나 나왔고, 마리아상도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가져온 성상까지 압수되었습니다. 묵주가 6개, 수십 책의 교리서와 베껴 쓰다 만 낱장이 456장, 한글 기도문을 베껴 쓴 종이가 134장이나 나왔습시다. 그녀들은 이곳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꾸려 각종 교리서를 등사하고, 기도문을 베껴 각처에 보급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피해 증가하는 교리서와 기도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과부의 신분을 적극 활용했던 것이지요.

과부 최설애는 실 장수로 다니며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송재기의 집에 갔다가 젊은 남자를 만났습시다. 그는 당시 교회의 지도자 황사영이었습니다. 그의 소문을 익히 들어온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황사영에게 “지금 행색이 슬프고 처량하니, 어찌해야 다시 뵈올런지요?” 하고 말했고, 황사영은 그녀에게 “죽지 않는다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황사영에게 마음이 약간 설렘던 것 같습니다.

황사영은 최설애와 송재기의 처가 밤새 마련한 상복을 입고 상주로 꾸며 극적으로 도성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설애는 이 일로 체포되어, 황사영 찾기에 혈안이 되었던 의금부의 가혹한 고문 끝에 “천주교가 바른 도리임을 알았으니 형벌을 받더라도 바꿀 마음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1801년 11월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천주교의 무엇이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의 마음을 그토록 움직였을까요? 언제 다시 뵈올런지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이 그녀에게 참수조차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했을까요?

오늘(5월 4일)은 '생명 주일'입니다

'생명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교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성소 주일 행사

성소 주일을 맞아 미사를 포함한 성소 주일 행사, <유스 페스티벌(Youth Festival) '희희희'>가 5월 10일(토) 낮 12시~11일(주일) 오후 6시까지 혜화동 일대에서 열립니다. 주차 공간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성중고등학교 운동장 주차 불가)

행사명	유스 페스티벌(Youth Festival) '희희희'
행사 장소	가톨릭대 성신교정, 동성중·고(운동장 및 스테파노홀), 대학로 거리
주요 내용	'진리'(성신교정) 주교님과 만남, 전야 행사, 성소 주일 미사(5월 11일 10시)
	'평화'(동성중·고) 수도회 부스, OSEYO 콘서트 I·II, 작품 전시 등
	'사랑'(대학로 거리) 사랑 부스 체험, 토크 콘서트
프로그램은 큐알 코드(QR)로 사전 신청 필요(11면 참조)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5년 5월 8일 심재덕 마르코 신부(37세)
- 1971년 5월 9일 윤을수 라우렌시오 신부(64세)
- 1981년 5월 7일 정규만 마르코 신부(66세)
- 1982년 5월 8일 백일성 도미니코 신부(50세)
- 2012년 5월 8일 박준영 루도비코 몬시뇰(70세)

교구청 알림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6월 30일~7월 11일(11박 12일) / 지도: 전영준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심 소화데려사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때: 5월 8일(목) 오후 2시~3시, 문화관 2층 소성당 (코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김대용 신부(대만 파견)

(2025/5월)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 문의: 02)727-2047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접수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성경-고통은 왜?): 5월 15일~6월 1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6회)

환경사목위원회

- 1) 회칙 찬미반소서 반포 10주년 특별 강연
 때, 곳: 5월 13일(화) 오후 7시~9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강사: 아우구스토 잠피니-데이비스 신부(전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추진부 차관보, 아르헨티나 신부)
 주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회칙 찬미반소서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eco.catholic.or.kr>) 및 전화 접수(02-727-2278, 2283)
- 2) 제74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5월 15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3) 5월 청년환경모임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만 35세 이하 청년
 때, 곳: 5월 10일(토) 16시, 가톨릭회관 612호(명동)

2025 신규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규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2025년 부부의 회년

대상: 은혼식, 금혼식 / 문의: 02)727-2353
 내용: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랑의 기쁨> 중 '혼인의 사랑' 강의, 혼인갱신식
 때: 5월 28일~6월 18일 매주(수) 19시~20시30분

'슬픔 속 희망찾기' 5월 유가족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때, 곳: 5월 17일(토) 10시(자비의 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나눔의목상회 피정

대상: 사회복지사목에 관심있는 신자(선착순 40명)
 내용: 스테파노의 삶과 영성(성인의 삶에서 성찰하는 이웃사랑 실천&나눔)
 때, 곳: 5월 31일(토)~6월 1일(주일), 우이동 명상의집
 회비: 15만원(개인 7만원, 분회 지원 8만원)
 신청방법: <http://www.caritasseoul.or.kr>-알림 참여
 문의: 02)727-224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장소영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안내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가 5월 9일(금) 오후 3시, 교구청별관 6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시는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27-2073(www.hospitalpastoralcommittee.co.kr)

2025 부처님오신날 메시지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는 5월 5일,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 뜻깊은 날을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서울대교구의 모든 신자들과 함께 마음의 등불을 밝히며 그 기쁨을 나눕니다. 석가세존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록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외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본래 존엄하다는 깊은 가르침이 담긴 선언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교와 사상이 공유하는 '생명 존중'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올해의 봉축 표어인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로의 차이보다 공통된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더욱 깊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종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모두를 향한 '자비'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우는 '인연생기(因緣生起)'의 가르침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 부처님을 자비와 실천의 삶으로 맞이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숫타니파타>의 말씀처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평안하기를.” 자비와 평화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오신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5월 19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강춘구 스테파노, 이수정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녹음봉사자 14기 모집 및 교육 안내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녹음봉사회 봉사자 모집
 때: 6월 2일(월)·11일(수)·18일(수)·25일(수) 10시~12시
 대상: 표준어를 사용하는 40~52세 여성
 곳: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문의: 02)2290-3138
 접수방법: 굿뉴스·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 1) 가톨릭 소방공무원(자기들불을 위한 1일 파정)
- 2) 큰사랑 봉사회 회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 3) 가톨릭 의용소방대 모임
 대상: 현재 활동 중인 신자
 문의(접수): 02)727-2081 큰사랑봉사회 총무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도경 개인전: 1전시실
 가톨릭 스테인드글라스회 특별전: 2전시실
 최민정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 9일(금)~18일(주일)

한국교회사연구소 중국순례

'초대 조선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 시복시성 기원'
 때: 10월 19일(주일)~23일(목) 4박 5일 / 대한항공 순례자: 북경-장가구-서만자-승덕-적봉(마가자)-심양-차쿠 / 회비: 160만원(예상 / 남부 선착순 32명)
 계약금: 50만원(5월 31일까지 납입)
 계좌: 국민은행 844402-04-171823 천강우(교회사 동인회) / 문의: 010-8757-7639 정신영

장애인의 회년-교구장님과 함께하는 미사

때, 곳: 5월 25일(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집전: 정순택 대주교 /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 가능
문의(주관): 02)727-2107 청소년교 장애인신앙교육부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5월 1일(목)~23일(금) / 3개월 수업(6월~8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여름 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 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블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인준단체 알림

모임

ICPE 청년 몸신학 피정(시그널 심화)

때, 곳: 5월 10일·17일·24일(토)·25일(주일), ICPE 합정센터
문의(접수): 010-5320-0419 / 카카오톡플친: ICPE

심리독서 피정 / 문의: 010-7241-2236

때, 곳: 6월 27일 14시~29일 14시, 대구 베네딕도 영성관
주최: 톡쟁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대구 수녀원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장영자 은사자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치유기도회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5월 11일(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도서출판 성서와함께 '기도를 그리다' 그림 피정

때: 5월 17일(토) 14시~17시30분(미사 있음)
곳: 정릉성모교육원 / 이글이: 배영길 신부(예수회)
회비: 5천원 / 문의: 02)822-0127(www.withbible.com)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마진우 신부(대구교구 초전성당 주임)
때, 곳: 5월 21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2025년 DMZ 평화의 길

대상: 초3 이상 누구나(차수별 40명 선착순)
때, 곳: 5월 16일(금)~18일(주일) 2박3일
회비: 15만원 / 문의: 031)941-2766(www.pu2046.kr)
주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및 1,000송이 묵주기도·미사

1)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5월 6일 한 마르티나 수녀 5월 13일 이상기

2) 1,000송이 묵주기도·미사

때: 매월 첫째주(월) 5월 5일 12시~16시30분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1강당

지리산 피아골·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7월 18일~19일, 9월 20일~21일, 11월 21일~22일
홍성남 신부	고토·나가사키 6월 16일~20일·11월 3일~6일, 아키타 9월 8일~12일
한국 수도원 순례	10월 14일~17일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주제: 참행복의 길(빛의 신비)
때: 5월 11일(주일) 10시~16시(9시 미사 참석 가능)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5월 16일~19일·6월 20일~23일·7월 18일~2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본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 문의: 010-9363-7784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 주제:
성모님은 성부의 딸, 성자의 모친, 성령의 궁전이다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일 둘째주(토) 5월 10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제주 피정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순례(성지·자연), 섬, 말씀초대
대상: 개인, 가족, 단체, 본당(사목위원·구반장)
때: 6월 9일~11일·9월 18일~20일·10월 30일~11월 1일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2025년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폴로 대피정

때, 곳: 5월 24일(토) 9시~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혜화동) / 문의: 02)727-2489, 010-3136-7869
주제: "희망에 너희 마음을 열이라"(메시지 604번)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 강의: 전진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수도회, 우이동 명상의 집 원장)
주최: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매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 5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1) 매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
매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중식 무료)
때: 5월 5일(월) 10시~16시
2) 5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때: 5월 10일(토) 12시~17시30분 / 미사·안수(중식 무료)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6월 28일(토)~29일(주일), 8월 30일(토)~31일(주일)
2박3일	6월 23일(월)~25일(수)
3박4일	6월 5일(목)~8일(주일), 7월 3일(목)~6일(주일)
8박9일	5월 14일(수)~22일(목), 6월 12일(목)~20일(금)
40일	10월 14일(화)~11월 22일(토)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8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미사(전국 행사)

때, 곳: 5월 13일(월) 10시~16시(미사 14시), 파티마 평화의 성당(임진각 파주) / 출발: 9시, 가톨릭회관(명동)
버스표 판매: 좌석당 1만8천원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추라도포함 제주전체 성지순례 6월 21일~23일·7월 1일~4일·9월 7일~10일·9월 18일~21일·10월 25일~28일,
자연순례 5월 21일~23일(성모의밤)·5월 24일~26일·6월 12일~14일·7월 12일~14일·9월 1일~3일·9월 7일~9일,
제주섬 우도 포함 7월 18일~20일·7월22일~24일(차귀도)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묵공에)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서울대교구 41기)

때, 곳: 6월 1일~29일 매주(주일) 13시30분~18시
30분(5주간), 세곡동성당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sufather2009@naver.com)

부모교육 프로그램

자녀와의 관계 개선, 자녀의 학업성적 향상을 돕는 교육과정 / 홈페이지: www.jiscen.or.kr
때: 5월 14일~6월 11일 매주(수) 10시~12시(5주)
문의: 02)726-0700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2025년 후기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 문화영성학과(석사과정) /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4월 28일~5월 11일 / 면접: 5월 23일 19시 예정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서울반포)
문의: 02)3147-8787(http://gcs.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
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원서접수: 4월 28일(월)~5월 11일(주일)
면접: 5월 30일(금) / 문의: 02)2164-4176, 4787, 4173
홈페이지(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 참조

성경통독·길잡이 도형틀(마인드맵)

성경을 읽고, 살고, 선포 / 내용: 도형틀(마인드맵)을 통해 각 장의 내용을 외우며 통독함
때: 6월 4일부터 오전반 10시~12시·오후반 18시~20시(오후반은 저녁 식사 제공) / 대상: 누구나
곳: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 샘(전철 1호선 중동역 5분 거리) / 문의: 010-3248-9705 지혜의 샘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5월 14일~28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5월 21일(수)~30일(금) / 전형일: 6월 14일(토)
모집전공: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 문의: 02)705-8668, 9

'청년 기도학교' 모집(전교가르멜수녀회)

기도 학교	대면반 5월 20일(화), Zoom반 5월 22일(목) 19시30분~22시(총10강) / 문의: 010-7523-0956
청년OFF 기도모임	매일 셋째주(토) 5월 17일 15시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손흥민 토트넘·서유림투어)

모집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1곡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40대 가톨릭 신자 / www.logoschoir.org
활동: (주일) 16시 및 대축일 미사 등 / 010-2633-2025
오디션: 5월 18일(주일) 17시, 명동대성당
명동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pc버전)

청년공간 모락모락 자원봉사자 모집(CLC)

청년들을 위한 3천원 김치찌개 주말식당
내용: 설거지, 재료 준비, 홀서빙 및 관리
때: (토)~(주일) 10시~15시·16시~21시(5시간) 택일
곳: 시흥1동 / 식사 제공, 봉사시간 인증
문의: 070-4285-2459 한국CLC

2025년 대건챔버라이어 연주단원 모집

잇혀진 거장 Zelenka 연주시리즈 7
Requiem(ZWV 46) / Missa Paschalis(ZWV 7)
오디션일정 개별 안내 / 문의: 010-6356-3347
지정곡: Missa Paschalis 'Gloria'(1-57마디)
악보는 대건챔버라이어 카페 공지사항에서 출력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5월 15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5월 7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와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바보나눔터와 함께 사랑을 전하세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나눔을 이어가고 싶은 가계, 식당, 병원, 학원 등 중소기업체라면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김수환 추기경님 현판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문의: 02)727-2506, 7 바보의나눔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따뜻한 기도모임	매일 첫째·셋째주(월) 19시30분~21시30분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카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카리따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유관단체 알림

부모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Zoom) 특강

주제: 청소년 자녀에게 신앙 환경 만들어주기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때: 5월 16일(금) 19시30분~21시30분
5월 12일(월)까지 접수 /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직원모집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공개 모집(신입)

분야: OTT운영, 편집기자, 광고마케팅, 방송경영
5월 11일까지 접수 / 문의: 02)2270-2114
홈페이지(www.cpbcc.co.kr) 참조

공릉동성당 방호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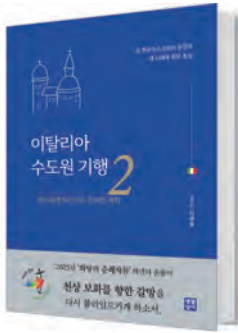
분야: 관리장(계약직 방호원) 1명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교우로 방화관리 및 시설물관리 자격증, 운전 면허자격증 소지자, 소방·전기·설비 유경험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 이메일 문의
5월 18일(주일)까지 우편·방문(우 01841,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92길 57 공릉동성당) 및 이메일(emo@seoul.catholic.kr) 접수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쑥고개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 시설관리·방호·미화 등 전반적인 업무(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근면성실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 문의: 02)873-2333
5월 21일(수)까지 방문·우편(우 08785,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79) 및 이메일(uld@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회 천주의 모친 봉쇄 수도원	매주(토) / 성소 상담·피정	수도원	010-6561-2906(www.dominicocorea.modoo.at)
삼성산 성령 수녀회	수시	관악구 호암로 454-16(신림동)	010-3551-5877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수도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5월 17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성심수녀회	5월 17일(토) 15시~17시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5696-2331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수시	가톨릭회관 516호	010-3068-0325 서울, 010-2969-5119 부산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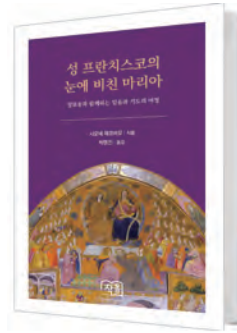
신간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2

하느님께 다가가는 신비한 여정

이관술 지음
생활성서사 | 240쪽 | 1만6천원
문의: 02)945-5987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원은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현미경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이탈리아 수도원의 역사와 현재를 이탈리아 성지 순례 가이드인 작가의 유려한 설명과 생생한 사진으로 전달해 준다. 이 책을 통해 수도 영성과 지혜가 깃든 장소인 수도원을 '보는' 방법을 소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성 프란치스코의 눈에 비친 마리아

성모송과 함께하는 믿음과 기도의 여정

시모네 체코바오 지음
도서출판 작음 | 76쪽 | 9천원
문의: 02)793-2070

성모송은 성경에 기초한 믿음, 교회의 전통, 신심이 훌륭하게 종합되어 있는 기도다. 저자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성모님에 대해 쓴 글이나 성 프란치스코 전기작가들이 전해 주는 성인의 생생한 목소리에 담긴 흔적들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주 특별한 관점, 곧 성 프란치스코의 시선으로 마리아의 신비와 성모송의 풍요로움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신간

만화 신약 성경 1, 2

황중선 글·그림
바오로딸 | 각 320쪽 | 각 2만원
문의: 02)944-0944

어린이 눈높이를 고려한 명랑하고 귀여운 그림체를 사용하여 4복음서 및 사도행전의 내용을 전하는 책이 출간됐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로 복음서의 이야기를 골고루 실은 이 책은 작가의 만화적 상상력을 통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관심과 호감을 느끼게 하여 성경을 더욱 친근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한다.



뮤지컬

밤처럼 웅기처럼

때: (평일) 20시, (토) 14시·18시(주일 및 국가 지정 공휴일 공연 없음 / 5월 17일(토) 13시·17시 공연)
입장권: 전석 3만3천원(단체 관람 전화 문의)
티켓 예매: 당일 현장 판매 / 문의: 02)461-1931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5% 할인

종교와 당파를 초월해 전 국민에게 존경받았던 김수환 추기경의 신념과 인간적 고뇌를 섬세하게 조명하는 작품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철학을 '밤처럼' 늘 곁에 있는 따뜻한 존재로, '웅기처럼' 정성과 기다림이 필요한 가치로 표현하며, 단순한 전기(傳記) 뮤지컬을 넘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Youth Festival

희희희

때: 5월 10일(토) 정오부터~5월 11일(주일) 오후 6시까지
곳: 해화동 일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동성중·고, 대학로 일부)
문의: 02)2230-2031 / 참가비 무료

WYD와 함께하는 5월의 축제 유스 페스티벌 '희희희희희'가 5월 10일(토)~11일(주일)까지 해화동 일대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청년들과 수도자들이 함께 모여 2027서울WYD를 위한 사전 행사로 마련한 환대와 연대의 장이다. 인류보편적 가치인 진리, 사랑, 평화를 주제로, 주교님과 만남, 성체강복, 미사, 성소 상담, 다양한 공연들과 작품 전시회, 거리 체험 부스 등이 열린다. 종교를 초월하여 모두를 초대한다.

사전 등록 큐알(QR)



선착순 리유저블백 증정
행사 당일 즉시 수령 가능
사전 등록과 기념품 수령은
만 15세~39세 청소년, 청년만 가능

◎ 2025년 명동보름장 개장

·기간 : 4월~11월 (첫째·셋째 주일) 10:00~16:00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 가톨릭회관 앞마당 일대

※명동보름장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명동대성당 청년전례단 '쉐마' 단원 모집

· 주요활동 : 주일 오후 7시 청년미사 전례봉사

· 대상 : 천주교 청년신자(93년~06년생)

· 마감 : 5/4(일)까지 (모집기간 연장)

· 지원방법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공지 참조
(입단신청서 및 교적증명서 제출)

· 문의 : mdshema@naver.com

※자세한 일정은 지원자에게 추후 개별 공지합니다.

◎ 명동청년성서모임 5월 봉사자 모집

·모집기간 : 5/1(목)~5/15(목)

·모집대상 : 20~33세(06년~93년생) 창세기 연수 이상을 수료한 청년 가톨릭 신자

·접수방법 : 네이버 카페(/ourbible)를 통한 온라인 접수

·상세공고 : 성당 마당 게시판 포스터 참조

·문의메일 : mdsd_bible@naver.com

◎ 명동대성당 영어미사봉사단 단원 모집

·대 상 :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만 25세~40세 신자로 주일 오전 9시 영어미사 전례봉사 및 기본적인 영어회화가 가능한 분

·지원방법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공지 참고

·접수마감 : 5월 17일(토) 낮 12시까지

◎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활 동 : 주일 오전 11시 미사,
매월 둘째 주일 세례식 성가 봉헌

·대 상 : 성가를 사랑하고 성음악에 관심있는 만 20세~55세 여성 가톨릭 신자

·오디션 일시 : 5/18(일) 낮 12시 30분

·오디션 장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오디션 준비 : 자유곡 또는 가톨릭성가 중 1곡

·문 의 : 단장 ☎ 010-2230-0138

◎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단원 모집

·활 동 : 주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대 상 : 성음악에 관심 있는 20~40대 남녀 가톨릭 신자

·오디션 : 5/18(일) 오후 5시

※지원방법은 본당 홈페이지(PC버전)→단체모집 게시판 또는 로고스합창단 홈페이지(www.logoschoir.org) 참조

◎ 청소년 주일학교 봉사자 모집

26년도 초중고등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증진시키고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주일학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만19세~29세 가톨릭 신자

·주요활동 : 청소년 교리교육 및 학생들과 함께 하는 미사 봉헌

·모집기간 : 4월 20일(주일) ~ 5월 25일(주일)

·문 의 : 본당 사무실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아미쿠스 주일학교 남자교사 모집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남자교사가 부족하여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만 40세 가톨릭 신자

·주요활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 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문 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작은 연주회

「주님과 음악 사이에」

·일 시 : 매월 첫째 · 셋째 주일 / 오후 3시 30분

·장 소 : 명동대성당 대성전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명동대성당 장년·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공동사항 : 세례 받은 남녀 (교적 본당 무관)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31-3004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9279-2381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분과 봉사 회원 모집

·모집조건 -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명동성당 행사 및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분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총현회 :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2838-6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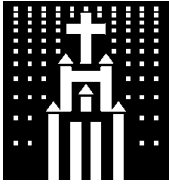
·대건회 : 매월 1회 비정규일 화합 ☎ 010-9011-8990

·범우회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6340-3528

·광암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8713-2000

·하상회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3687-2322

·만천회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8611-4097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 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 창 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 연 수(안토니오) 신부
선교·교육 문재 현(바오로) 신부
전례·성음악 이 철 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장애인신앙교육 이승 규(토마스아퀴나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로 이사악(이사악)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29

봉헌 : 253, 219, 342

성체 : 504, 167, 173

파견 : 245

◎ 5월 예비신자 교리반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토요반	오후 4:00	교구청 본 관 401호	오 헬레나 수녀

-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례 필수
- 환영식 : 5/4(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501호
- 첫 수업 : 5/10(토) 16:00
- 전화·사전 신청 불가
- 준비물 : 교재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천사(천원의 사랑)가 되어 주세요 !

매일 첫째 주일미사에는 헌금 봉헌 때 천사 바꾸니가 함께 비치됩니다. 5월 천사는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 '마고네지역아동센터', '마자렐로 센터'로 향합니다.

◎ 5월 6일(화)은 대체공휴일로 본당 사무실 휴무입니다.

※미사와 고해성사는 변동 없이 그대로 거행됩니다.

◎ 병자 영성체 : 5/7(수) 오전 9시

◎ 연례회 월례회의 : 5/11(일) 오전 11시 포스트 홀

◎ 성모 성월 꽃 봉헌

5월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 제대와 성모님을 위한 꽃 봉헌금을 본당 사무실에서 접수 받습니다.

※꽃 봉헌금도 기부금 처리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성모 성월 기도회 》

5월 성모 성월은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고자 다짐하는 달입니다. 매주 월요일 성모동산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에 함께하시어 성모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우천 시 기도회 취소)

- 일시 : 5월 5일, 12일, 19일,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미사 후

《 성모의 밤 》

화창한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본당 주보(主保) 이신 성모 마리아의 사랑과 온전한 믿음의 한평생을 기리고 본받으며, 이 시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하는 성모의 밤을 아래와 같이 봉헌합니다.

- 일시 : 5월 31일(토) 오후 8시
- 장소 : 명동대성당 대성전

◎ 2025년 2분기(5월) 새 신자를 위한 후속교육

· 시간/장소 : 오후 7시 30분~9시 / 교구청본관 401호

· 교육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세례 받은 신자

· 신청방법 : 1주차 교육일에 강의 장소에서 현장 접수
'교적 증명서 1부' 제출 必
(※사전 신청 불가 & 추가 접수 없음!)

교육일정		교육주제
1주차	5월20일 (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 성경과 기도 -
2주차	5월27일 (화)	성사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 - 성사 -
3주차	6월 3일 (화)	하느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 전례 -

※본 교육 수료 후 7주간의 성경 통독 프로그램(☞자율 선택)으로 이어지오니 새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소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 부활 제 4 주일은 「성소 주일」로 성소 계발과 성소자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4/21-4/27).....30,735,400
 - 부활 제 2 주일 헌금.....48,733,502
 - 감사헌금 (4/21-4/27).....1,879,000
- 김 발렌티노, 김 글로리아, 박 토마스, 오 젤뚜르다
이 리베라도, 이 사라, 임 사무엘, 장 프란체스카
정 스텔라, 조 마리아막달레나, 최 로사
최 베로니카, 홍 마리아, 익명(1)

미 사 (M a s 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주일미사 (토요일)	18:00, 19:00(3545+ 청년미사)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평일미사			고해성사 (Confession)				
		월	07:00, 18:00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화-금	07:00, 18:00, 19:00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토	07:00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성지미사	월-토	10:00	Sun.	08:30 - 08:5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Sat.	16:00 - 17:00				

【 1% 행복발견 】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행복 발견하기'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자애로운 어머니 성모님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